



실천이론과 과학기술 인재 : 노벨상 발표 시즌에 우울해지지 않는 법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구성원의 규범적 판단능력이 사회적 실천이라는 상징적 구조물들을 구성하며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사회적 실천들로 이루어진 문화가 사회의 효율성을 결정한다고 했다. 예컨대 구성원이 경제적 풍요를 원한다면 바로 그 경제적 효율성 - 즉 부를 효율적으로 축적하는 것 - 이 사회의 효율성이 되는 것이다. 후기 근대의 상황처럼 전문가나 지도자가 형식적인 제도개혁과 정책을 통해 사회운영의 규칙을 정해 주면 구성원들이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위성을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한계에 도달했다. 때문에 이제는 구성원 스스로 자신이 구사하는 규범적 판단기준의 변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만이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누구나 규범적 판단 통해 사회적 실천의 작동 지원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듯이 한국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면, 아니면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은 어리석거나 사악해서 자신을 옥죄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시대 한국사회의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규범적 판단으로 작동되는 사회적 실천은 각 구성원의 삶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적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도구는 구성원 각자에 의해 유지되고 변화되는 공동의 작품이기도 하

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이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 순간 자신의 규범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실천이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 구성원의 규범적 판단이 사회의 효율성을 결정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사회의 비효율적 실천으로 고통받는 모든 구성원은 바로 자신이 설정한 질곡에 갇혀있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한편 사회적 실천의 작동에 필수적인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만약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실천의 판단 기준을 의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그 실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른 효율성 저하는 결국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실천은 처음 구성 당시에는 그 사회에 효율적인 것으로 고안됐다 하더라도 사회적 환경변화로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이 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사회적 실천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적응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회적 실천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 역시 사회 붕괴의 원인이 되게 된다. 결국, 각 구성원의 새로운 시도 중 어떤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가져올지에 대한 구성원 각자의 현명한 판단만이 사회적 실천의 안정성과 적응적 변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창의적 인재들을 사장시키는 한국의 교육과정

후기 근대에는 이러한 판단을 통해 어떤 시도들을 사회적 실천에 반영할 것인가를 가려내는 작업이 바로 모



글_조주현 |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juhyun@kmu.ac.k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사는 페미니스트 이론,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질적 방법론이다. 저서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성 해방과 성 정치(공저)>, <벌거벗은 생명 :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명정치와 페미니즘> 등이 있으며, 역서로 <페미니즘과 기술>,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등이 있다.

든 구성원의 시민적 임무가 된다. 이때 각각의 판단자들은 다른 구성원의 시도에 관대해야 하며 사익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판단자가 다른 모든 구성원의 시도에 대해 포용적이어야 하는 것은, 사회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자신만이 접할 수 있는 정보와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기회가 최대한 많이 제기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판단의 정교함이 요구되는 것 역시 각자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구성원들의 정보와 경험과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결코 어떤 형식적인 규칙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 형식적인 규칙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회의 목표나 구성원이 꿈꾸는 삶의 방식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무한에 가까운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효율성을 향상할 가능성의 공간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사회의 답답함은 새로운 사회적 실천을 익히는 어린 세대의 창의적 공간을 근본적으로 축소하는 교육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 입시의 의미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소수의 안정적이거나 고소득인 직업을 누가 차지하는 것이 옳은가를 가리는 도구로 간주되고, 교육개혁의 방향이 이 작업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현재 상황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이 드러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이라는 정형화된 시험에 의존해서 이들 직업을 갖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대학을 배정하는 것은, 수능을 목표로 초중고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비효율적인 실천이 아닐 수 없다. 한 개의 정형화된 시험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려는 시도는 역사상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시도다.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직업에 인재들을 배정하는 작업을 위해 진짜 창의적인 인재들을 사장시키는 이러한 실천은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학생들을 추첨을 통해 의대, 치대, 수의대 등에 배

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직업의 업무능력이 특별히 훼손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능검사의 경우처럼 지적 능력과 이들 시험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들 시험이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 예컨대 수능시험의 형식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에 대해서까지 변별력이 있다고 말하려면 수능시험의 형식이 인간의 지적 능력의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수능시험의 형식에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인지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당황시킬 만큼 놀라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성과 적응적 변화 사이에서 균형 찾아야

필자는 이런 주장을 이미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실천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애써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사실이라도 널리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또는 학벌로 작동하는 지금의 실천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의 자식이 그런 좋은 직업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어쨌든 필자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실천이론의 주장대로 이런 비효율적인 실천의 유지와 그 결과에 우리 모두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뿐이다. 노벨상 발표 때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창의적인 기업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마다 나오는 한탄, 즉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재들이 없을까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인재를 얻기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다른 것이 많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특출한 인재가 나와 노벨상을 받거나 세계적인 벤처기업을 만들면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의 서열도 바뀌고, 이로 인해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짓누르는 심리적 한계도 무너지면서 붓물 터지듯이 새로운 인재들이 과학 분야나 벤처업계에서 배출되는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무 욕심내지 말자. 우리에게도 필자도 좋아하는 BTS도 있고 김연아도 있지 않은가. ㉮